

여수시 드림스타트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맞춤형 서비스

270명 대상·4개 분야 34개 프로그램 추진

대상자 발굴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예정

여수시가 취약계층 아동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만 12세 이하 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복지, 보육, 보건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전인적 발달을 도모한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270여 명을 대상으로 신체/건강, 정서/행동, 인지/언어, 부모/가족 등 4개 분야 34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요자 욕구에 맞는 개발을 위해 전년도 통합 사례관리 대상아동 25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초등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치과 치료에서부터 예체능 및 학습 지원, 심리상담 지원, 부모교육, 문화체험활동까지 전체적인 지원으로 이어져 아동의 토대인 가족 구성원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병원, 학교, 심리치료센터,

학원 등 지역사회 기관·단체 및 자원봉사자와 연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올해도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의 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기자



대한노인회 전남연합, '코로나19 성금' 기탁



전라남도는 12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가 도내 취약어르신에게 써달라며 코로나19 성금 6천 45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가진 기탁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배기술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장,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탁 받은 성금은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에서 시군 사회와 주요 경로당 등 1천 600개소에 모금함을 설치해 지역 어

르신들로부터 십시일반 모금한 것으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22개 시군 취약어르신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배기술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장은 “전남연합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진해서 경로당을 찾는 노인 인원을 조정해가며 방역에 동참해왔다”며 “어려울 때 일수록 모범이 되고자 모금한 이 성금을 기록적인 한파로 힘들어할 지역 노인들을 위해 사용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기탁한 성금은 총 2억 749만 3천원으로 도내 취약어르신들에게 쓰여 왔다.

김정환기자

무안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무안군은 금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권)자의 부모, 자녀 등 1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배우자(며느리, 사위)에 대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부양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기초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2021년부터는 65세 이상의 노인

이 포함되거나 저소득 한부모가구인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예외규정으로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원, 월 834만원),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원)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군은 신청을 안내하기 위한 현수막 부착과 개별안내문 발송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기준

완화 조치로 620여 가구가 신규수급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들이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소외계층 어르신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기자

광주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선정

광주광역시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2021년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올해 초등학교 4학년 전체 아동 1만4400여명으로 상반기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

지 총 3년간 정기적으로 치과 의원의 관리를 받는다.

그간 구강 서비스는 치아가 아플 때 치과에 방문해 치료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시범사업은 아동이 6개월마다 계약을 맺은 치과 의원에서 구강 건강상태를 점검

받고 구강보건 교육 및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번 사업 재정은 전액 건강보험으로 연 10억씩 총 3년간 30억이 투입되며, 대상아동은 1회 3만 8300원(진찰료포함)이 지원됨에 따라,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이용 시 7500여원의 본인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기동취재본부

순천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 최우수기관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평가에서 서비스

질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장애인활동지원평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전국 344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상위 30개 기관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2020년 평가결과,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2008년 처음 시작하여 12년간 장애인의 일상생

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또 중증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 당사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꾸준히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정한나 관장은 “앞으로도 이용인(보호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통해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활동지원사의 복지증진을 통해 서비스 품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